

방역조치 등으로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보다 넓고 두텁게' '소상공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시작

총 7개 유형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버팀목자금플러스.kr' 에서 신청 가능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 이하 전북중기청)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29일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사각지대 최소화를 통해 방역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체를 '보다 넓고 두텁게 지원' 하도록 설계했다.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5인(제조업 등 10인)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했으나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소기업 전체를 지원대상으로 포함했다. 일반업종(매출감소) 유형에 대해서는 매출액 한도를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해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1인이 다수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과거 1개 사업체만 지

원한 것과 달리 4개 사업체, 최대 단가의 2배인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버팀목자금은 2020년 11월말 이전 개업한 경우만 지원대상이었으나, 이번에는 올해 2월말 이전 개업한 사업체까지 지원한다. 또한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보다 두텁게 지원' 하기 위해 지원금액을 최대 2019년보다 2020년에 매출이 증가한 경우 2배인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이전과 달리,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라도 2019년보다 2020년에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받지 못하며 일반업종으로 새희망자금 또는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2020년에 매출이 증가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맞춤형 피해지원을 위해 지원유형은 총 7개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2020년 11월 24일부터 2021년 2월 14일까지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지원금액>

구분	집합금지		영업제한	정영위기(매출 20%이상 감소 업종)		매출감소
	지속	완화		60% 이상 감소	40% 이상 감소	
기준	6주 이상	6주 미만	영업제한	60% 이상 감소	40% 이상 감소	20% 이상 감소
매출액 요건	소기업	소기업	소기업 & 매출감소	소기업 & 매출감소	소기업 & 매출감소	매출 10억원 이하 & 매출감소
지원금액	500만원	400만원	300만원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총 12주 중에서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사업체에는 500만원을, 6주 미만인 사업체에는 400만원을 지원한다. 동일한 기간 중에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는 300만원이 지원된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업종은 매출감소 유형과 경영위기업종으로 구분하여 피해정도에 따라 지원한다.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업종에 속하지 않는 사업체로 연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경우(매출감소 유형) 100만원이 지원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시기는 29일부터다. 1차로 구축한 신속 지급대상자 DB에 포함된 인원에게는 29일

<경영위기업종 매출액감소율별 현황>

구분(매출액감소율)	해당 업종(개)	업종 예시	지원금
60% 이상	5	여행사업,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예식장업	300만원
40% 이상 ~ 60% 미만	23	전세버스 운영업, 이동업	250만원
20% 이상 ~ 40% 미만	84	-	200만원
소계	112	-	-

0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순차적으로 송부됐으며,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 '버팀목자금플러스.kr' 에서 가능하다. 29일, 30일 이틀간은 홈페이지로 운영되므로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고, 31일부터는 홈페이지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인이 다수의 지원대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4월1일(4일차) 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이번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못했으나 2020년 12월 이후 신규 개업, 경영위기업종 중 매출액 10억원 초과 사업체, 계절적 요인 등의 반영이 필요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신속지급은 오는 4월 19일에 시작된다. /김윤상 기자

이번 버팀목플러스는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에 지급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1811-7500)와 온라인 채팅상담도 운영되며, 버팀목자금플러스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go.kr)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윤종욱 전북중기청장은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지원의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버팀목자금보다 지원대상이 확대되었다"며 "소상공인들에게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국민 참여형 농식품 규제혁신 특별 공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스마트팜, 반려동물 연관 산업, 비대면·온라인 등 농식품 분야 신산업 육성과 국민 불편·부담을 초래하는 현장으로 해소를 위해 3월 29일부터 5월 21일까지 농식품 규제혁신 특별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참신한 시각에서 규제 혁신 성과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우수 사례를 전파·확산할 수 있도록 기존 동영상 외에 '카드뉴스와 웹툰 제작' 분야를 새롭게 추가했다. 이번 공모에는 농업인, 농식품업체, 기업인, 학생 등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과제는 각 부문별 제출방법(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 참고)에 따라 제출하면 된다. 규제개선 제안 부문 응모자는 농식품부 누리집에서 제안서 제출시식을 내려받아 관련 내용을 작성 후, 전자우편(mafrai@korea.kr)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고, 규제혁신 성과 홍보 콘텐츠 제작 부문 응모자는 농식품부 누리집이나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의 농식품부 규제혁신 사례 등을 활용하여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원본 파일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에 제출된 응모 과제, 홍보 콘텐츠는 농식품부 규제혁신위원회 심사를 통해 우수과제를 선정하고, 평가 등급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다. 이번 공모의 규제혁신 성과 홍보물 선정작은 농식품부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에 게재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유·확산하고, 홍보콘텐츠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매출액 감소 보전·임차료 지원

전북은행, 225억원 규모 소상공인 회생 보듬자금 지원
업체당 최대 5000만원 한도·도에서 3년간 2% 이차보전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코로나19 경기침체 장기화로 도내 폐업자의 수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매출액 감소 보전과 임차료 지원 등으로 전북 경제의 중심축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지원내용은 업체당 최대 5,000만원 한도(기보증 포함 7,000만원 이내), 1년 거치 7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거치기간 없이 8년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또는 3년 일시상환 등 다양한 상환방식으로 1% 미만의 저금리로 지원한다. 전북도에서 3년간 2% 이차보전을 해주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다. 이번 금융지원을 위해 전북은행은 전라북도도와 4개 금융기관과 함께 지난 25일 '소상공인 회생 보듬자금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날 전



북은행은 12억5,000만원을 출연하며 225억원 지원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에 앞장섰다. 전북은행 임용택 은행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다가오는 봄을 마음껏 만끽할 수 없는 시기인 만큼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소상공인에게도 따뜻한 봄날이 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농진청 "과수·인삼 봄철 저온피해 미리 대비해야"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올해 과수 꽃 피는 시기가 평년보다 빨라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과수, 인삼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3월부터 4월 중순 사이 발생하는 저온현상에 미리 대비해 줄 것을 29일 당부했다. 기상청의 3개월 전망(3월 23일 발표 기준)을 보면 4월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 경향을 보이겠지만, 상층의 찬 공기 영향으로 쌀쌀한 날씨가 보일 때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봄철 저온현상은 주로 4월 상순경에 발생했으며 특히 과수(사과·배)와 인삼 작물에 피해가 집중됐다. 2018년 4월의 경우에 7~8일 기간 중 최저기온이 -5~-1℃로 내려가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개화 중인 과수를 포함한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했다. 2019년에는 3월 23~25일, 4월 1~3일, 2020년에는 4월 5~6일에 최저기온이 -5~-3℃로 떨어져 저온 피해가 발생했다. 사과, 배 등 과수는 4월 상·중순경 꽃이 만발하기 때문에 저온으로 꽃이 말라죽는 피해를 최대한 줄여야 상품성 있는 열매를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방풍ネット, 미세살수장치 등 저온 피해 예방시설을 마련한 농가는 개화기 저온에 대비해 각 장치의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연소법을 활용할 농가는 연소자재를 미리 준비해 기온이 떨어졌

을 때 적극 대응해야 한다. 저온 피해 예방시설이 없는 농가에서는 ▲과수원 내부 공기흐름 방해물 정리 ▲과수원 땅 밑 수분 공급 ▲과수원 바닥의 잡초 또는 덮개 제거 등을 실시해야 한다. 개화기에 꽃이 저온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를 받지 않은 꽃에 인공수분을 실시해 결실률을 높여야 한다. 인삼은 온도가 낮으면 새순이 죽기 때문에 최대한 씩이 늦게 뜰 수 있도록 재배시설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두둑에 햇빛이 들면 인삼 씩이 빨리 뜰 수 있기 때문에 해가림망을 씌우고 인삼밭 주변에 바람막이용 울타리를 설치해 찬바람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저온피해를 심하게 입은 경우 새순이 말라죽는 것 외에도 잿빛곰팡이병, 줄기점무늬병 등 병해에 의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방약제로 방제를 실시해야 한다. 농촌진흥청 김경화 재해대응과장은 "2~3월 평균온도가 높아 과수 꽃이 일찍 피고 인삼 씩이 빨리 나오면서 봄철 저온으로 인한 피해 위험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과수 꽃 피는 시기와 인삼 씩이 트는 시기에 기상 동향을 잘 살피고, 저온피해 방지 대책을 적극 실천해 안정적인 결실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지역농업발전 역량 집중

농협 무주군지부, '상생정당' 서 반딧불 영농작업반 발대식

농협 무주군지부(지부장 오영석)는 29일 군지부 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무주군 상생정당에서 지자체 협력사업 추진 및 반딧불 영농작업반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황인홍 군수, 박찬주 군의회 의장, 전북농협 정재호 본부장, 무주농협 과동열 조합장, 구천동농협 양승욱 조합장, 농업인 관련 단체장(새농민, 농민회, 농가주부모임), 영농작업반장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농협 무주군지부는 농촌의 노령화와 따른 농번기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2016년부터 반딧불 영농작

업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8개 작업반(330여명)을 구성 해 영농현장에 숙련된 인력을 지원 해 오고 있다. 올해에는 무주군지부 뿐만 아니라 무주농협, 구천동농협도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 사업 공모에 선정됨으로써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인력 지원을 적기에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또한, 무주군지부는 무주군과 지역농협, 농업인 등과 함께 2021년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8개 사업 총 사업비 68억원을 투입 해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농업발전에 역량을 집중

할 계획이다. 올해 지자체협력사업에는 방해 해가 큰 무주 지역 특성을 반영 해 농가 부담분을 10%로 대폭 낮춘 농작물재해보험 부담금 지원사업, 친환경 농업 조성을 위한 가축분퇴비 지원사업(일명 천일퇴비), 농산물 공동순화수거판매사업, 기능성 미생물을 비료지원사업 등이 선정돼 추진 중에 있다. 오영석 지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촌에 일손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예상된다"며 "농촌인력증가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 해 농가들은 영농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농협은 29일 전주농협 소속 농가주부모임과 함께 농촌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찬찬찬(饌饌饌) 반찬나눔행사를 실시했다.

이웃을 위한 반찬 나눔

전주농협·농가주부모임 '찬찬찬' 나눔행사 열어

전주농협(조합장 임인규)은 29일 전주농협 소속 농가주부모(도회장이경자, 연합회장 유복자)와 함께 농촌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찬찬찬(饌饌饌) 반찬나눔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재호 농협 전북지부 본부장을 비롯해,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의 후원으로 사)농촌사랑법국민운동본부가 참여했다. 전주농협 농가주부모 회원들은 반찬 3종(김치, 장조림, 코다리조림)을 정성껏 조리해 홀몸어르신, 저소득계층, 편모 가정 등 농촌 취약계층 1백여 가구에 직접 전달했다. 임인규 조합장은 "코로나19로 유례 없이 장기간 동안 전 국민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특히 농촌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지역 위탁사업 성공, 농업 서비스 질 향상'

남원 농어촌공, 이환주 남원시장과 위탁사업 추진현황 점검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지사장 이충호)는 이환주 남원시장이 29일 오전 시청 시장실에서 농어촌공사 이충호 남원지사장 및 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공사 위탁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점검했다고 밝혔다. 남원지사는 남원시로부터 유지관리사업, 지역개발사업, 배수개선사업 등을 일괄 위·수탁하여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 농촌마을 경관개선, 기초생활환경정비, 노후 농업기반시설 등의 사업을 통해 농업서비스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환주 시장은 관련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 후 주요사업 국비확보와 공모사업 신규



발굴 등을 점검하고, "금년도 사업비의 조기집행으로 예산비용을 최소화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충호 지사장은 "남원시 위탁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지역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농업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남원시와 적극적인 업무협력 관계를 유지해 남원농업 발전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사랑상품권 '새해맞이'

경품이벤트' 7주차 당첨자 발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이 전주시 지역화폐 전주사랑상품권('패키지카드') 사용 고개를 위해 진행한 '새해맞이 경품이벤트'의 7주차 당첨자를 29일 발표했다. 이번 회차의 IG스타일러 당첨의 주인공은 총 3명이며, 추가로 전주사랑상품권 충전 인센티브 4만점에 당첨된 100명의 고객들은 지난 23일 인센티브 충전이 완료된 상태다. 당첨자 중 한 고객은 "정말 마음에 드는 경품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쁘고, 앞으로도 전북은행을 자주 이용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윤상 기자

중기 56.5%, '접대비'

대체용어 '대외활동비' 선호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김병욱 의원실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52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접대비' 용어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56.5%는 접대비 대체용어로 '대외활동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접대비 대체용어로는 '대외협력비'(23.1%), '거래활동비'(16.5%), '거래준비비'(3.6%) 등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 10개사 중 8개사(79.6%)는 "불건을 주고 받는다"는 뜻의 '거래'라는 표현보다 실제 기업의 영업활동을 전부 포괄하는 개념인 '대외'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접대비 용어에 대한 이미지는 '부정적'(33.2%)이라는 응답이 '긍정적'(7.2%)보다 4.6배 높았다.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이유로는 '접대라는 용어는 현 시대에 부적절함'(44.6%), '기업 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 유발'(42.3%), '실제 지출내용과 용어의 의미가 상이'(13.1%) 순이었다. 접대비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으로는 중소기업 62.4%가 접대비 인정범위 및 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접대비 한도확대'(15.2%)보다 '접대비 인정범위 확대'(47.2%)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많았는데, 이는 실제 기업의 경비를 접대비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접대비로 인정되지 않는 등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윤상 기자